

제 5 교시

제2외국어/한문 영역(한문 I)

성명  수험 번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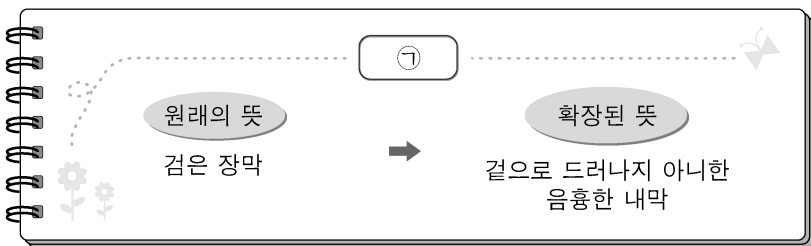
1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교사: 조선 후기 화가 이인문의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?  
 문경: 초가지붕 위에는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고, 주변 소나무 가지 위에도 눈꽃이 피어 있네요.  
 은지: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. 친구가 찾아왔나 봐요.  
 신우: 소를 끌고 온 한 아이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아이도 보여요.  
 교사: 그래요. 이 그림은 눈 속에 친구를 방문한 모습을 그린 것이랍니다. 그래서 그림의 제목을 ‘雪中(㉠)友’라고 하지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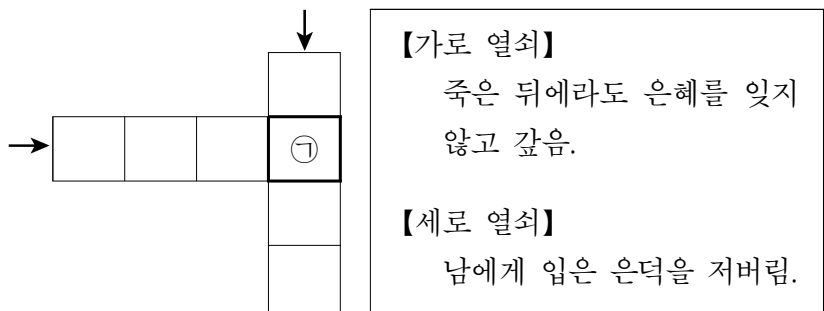
- ① 邦    ② 訪    ③ 畏    ④ 益    ⑤ 送

2.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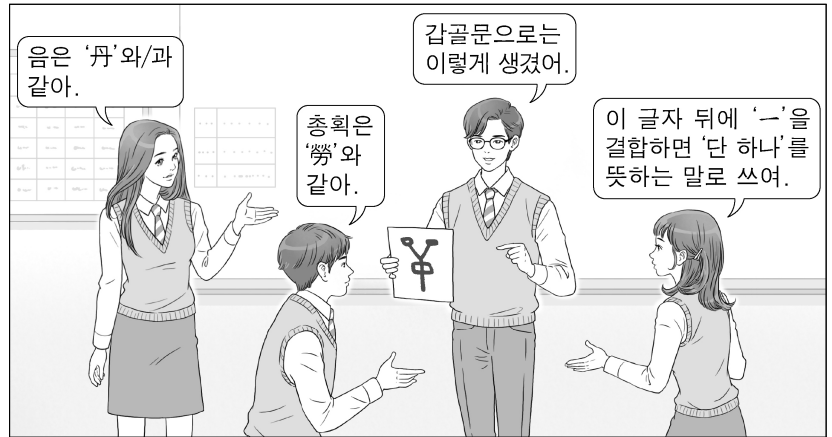
- ① 開幕    ② 序幕    ③ 黑幕    ④ 銀幕    ⑤ 閉幕

3.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,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- ① 恩    ② 後    ③ 報    ④ 意    ⑤ 念

4.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한자는? [1점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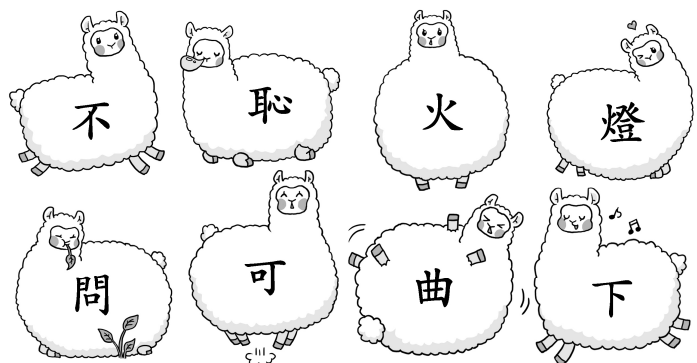
- ① 留    ② 短    ③ 單    ④ 周    ⑤ 卑

5.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1점]



- ① ㉠    ② ㉡    ③ ㉠, ㉡  
 ④ ㉡, ㉢    ⑤ ㉠, ㉡, ㉢

6. 그림의 한자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의 의미와 관계있는 것은?



- ① 이번 일의 결과는 보나 마나 뻔해.  
 ② 이유는 묻지도 않고 몰아세우는군.  
 ③ 이렇게 가까이 두고도 한참을 찾았네.  
 ④ 서늘한 가을밤이라 책 읽기에 참 좋구나.  
 ⑤ 아랫사람에게 묻는다고 자존심 상할 일은 아니야.

7. 글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은?

끓고 있는 물을 식히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?  
 끓고 있는 물을 펴 올렸다가 다시 붓는 것보다는 물을  
 끓이는 데 쓰는 열감을 제거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.  
 마찬가지로 멀리 있는 이를 복종시키고자 한다면, 가까운  
 이들부터 잘 다스려서 멀리 있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찾아  
 오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입니다. 또 잘못을 바로잡고자  
 한다면, 행동을 고쳐서 그 잘못이 저절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 
 가장 나을 것입니다. 만약 근본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말단만  
 바로잡는 정책에 힘쓴다면, 그것이 곧 재앙의 원인이 될 것  
 입니다.

- 『육선공주의』 -

- ① 姑息之計      ② 我田引水      ③ 千慮一失
- ④ 牽強附會      ⑤ 優柔不斷

8.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알맞은 것은?



- ① 自畫自讚      ② 泰然自若      ③ 自業自得
- ④ 毛遂自薦      ⑤ 悠悠自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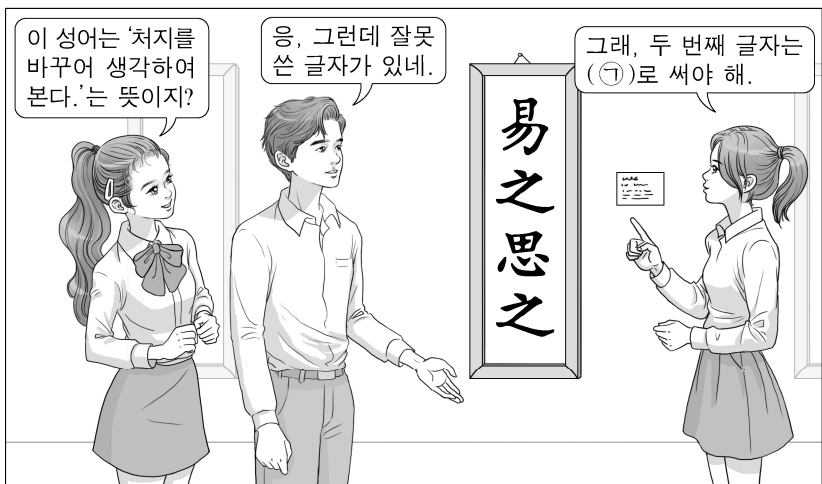
9.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?

守口則無妄言, 守身則無妄行, 守心則無妄動.

- 『기언』 -

- ① 正直      ② 慎重      ③ 守則      ④ 包容      ⑤ 忠言

10.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갈 것은? [1점]



- ① 地      ② 志      ③ 支      ④ 持      ⑤ 至

11. 글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?

○ 下之事上也, 不從其所令, 從其所行.      - 『예기』 -  
 ○ 其身正, 不令而行, 其身不正, 雖令不從.      - 『논어』 -

- 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.
- ② 학식이 깊어질수록 타인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.
- ③ 큰일을 이루려면 작은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.
- ④ 남을 따르게 하려면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.
- ⑤ 뜻밖의 재물이 생기면 부정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.

12. 광고의 내용과 관계있는 것은?



- ① 與人語美惡, 皆言好.
- ② 若要人重我, 無過我重人.
- ③ 同欲者相憎, 同憂者相親.
- ④ 愛人無可憎, 憎人無可愛.
- ⑤ 與其病後能服藥, 不若病前能自防.

[13~14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子謂顏淵曰：“用之則行，舍之則藏，惟我與爾，有是夫。” ㉠子路曰：“子行三軍，則㉡誰與？” 子曰：“暴虎馮河，死而無悔者，吾不與也，必也臨事而懼，好謀而成者也。”

\* 顏淵(안연): 사람 이름      \* 爾(이): 너  
 \* 馮(빙): 맨몸으로 건너다  
 - 『논어』 -

13. ㉠의 풀이로 옳은 것은?

- ① 무엇을 주겠습니까
- ② 어디로 보내겠습니까
- ③ 언제 함께하겠습니까
- ④ 누구를 보내겠습니까
- ⑤ 누구와 함께하겠습니까

14.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㉡가 얻을 수 있는 삶의 자세로 알맞은 것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<보 기>

㉠. 조심성      ㉡. 공정성      ㉢. 계획성      ㉣. 적극성

- ① ㉠, ㉡      ② ㉠, ㉢      ③ ㉡, ㉣
- ④ ㉡, ㉣      ⑤ ㉢, ㉣

15. ㉠에 들어갈 내용을 <보기>의 카드를 활용하여 완성하고자 할 때,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? [1점]

公事先於人, ( ㉠ ).  
- 『청성잡기』 -

<보 기>

㉠	㉡	㉢	㉣
於	後	私事	人

- ① ㉠-㉡-㉢-㉣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㉡-㉠-㉣-㉢
- ③ ㉡-㉣-㉠-㉢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㉢-㉡-㉠-㉣
- ⑤ ㉣-㉢-㉡-㉠

[16~17]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遠客思歸切, 登樓北望京.  
還同江上雁, 秋盡更南征.  
- 윤결, 『次忠州望京樓韻』 -

16.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<보 기>

ㄱ. 형식은 오언절구이다.  
 ㄴ. 운자(韻字)는 ‘切’, ‘京’이다.  
 ㄷ. 넷째 구는 ‘秋盡 / 更南征’으로 띄어 읽는다.  
 ㄹ. 선경후정(先景後情)의 기법으로 시상을 전개하였다.

- ① ㄱ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ㄴ, ㄹ
- ④ ㄴ, ㄷ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ㄱ, ㄴ, ㄷ, ㄹ

17. 위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?



[18~19]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兩人對酌山花開, 一杯一杯㉠復一杯.  
 ( ㉡ ), 明朝有意抱琴來.  
 - 이백, 『山中與幽人對酌』 -

(나) 산꽃 핀 데 둘이 앉아 한 잔 다시 또 한 잔을  
 나는 취해 자겠으니 그대 역시 갔다가  
 널 아침 생각나거든 거문고 들고 오게나

18. (나)는 (가)를 시조 형식으로 번역한 것이다. 이 내용으로 보아 ㉠과 음이 같은 것은? [1점]

- ① 復活    ② 復古    ③ 復舊    ④ 復權    ⑤ 復歸

19. (나)의 내용으로 보아 ㉢에 들어갈 시구는?

- ① 我醉欲歸歸若何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我醉欲眠卿且去
- ③ 我醉我歌我獨酌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我醉拔劍或時舞
- ⑤ 我醉欲忘世間憂

[20~22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曾子㉠弊衣而耕於魯, 魯君聞之而致邑焉, 曾子㉡固辭不受. 或曰: “非㉢子之求, ㉣君自致之, 奚固辭也?” 曾子曰: “㉤吾聞受人施者常畏人, 與人者常驕人. 縱君有賜, 不㉥我驕也, ( ㉦ )”

\* 魯(로): 나라 이름    \* 驕(교): 교만하다  
 - 『공자가어』 -

20. ㉠과 ㉡의 음이 모두 옳은 것은? [1점]

- |      |    |      |    |
|------|----|------|----|
| ㉠    | ㉡  | ㉢    | ㉣  |
| ① 금의 | 찬사 | ② 녹의 | 겸양 |
| ③ 마의 | 치사 | ④ 포의 | 사양 |
| ⑤ 폐의 | 고사 |      |    |

21. ㉠~㉣ 중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- ① ㉠, ㉡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㉠, ㉢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㉡, ㉣
- ④ ㉠, ㉢, ㉣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㉡, ㉢, ㉣

22. 글의 흐름으로 보아 ㉤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는가.
- ②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는가.
- ③ 내가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는가.
- ④ 내가 어떻게 요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.
- ⑤ 내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.

[23~25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㉠日月如流, 事親不可久也. 故爲子者, 須盡誠竭力, 如恐  
㉡不及, 可也. 古人詩曰: “㉢古人一日養, 不以三公換.” 所謂  
愛日者如此.

\* 竭(갈): 다하다  
- 『격몽요결』 -

23. 의미상 ㉠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?

- ① 時間    ② 天下    ③ 空間    ④ 世上    ⑤ 人間

24.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㉡의 의미로 옳은 것은?

- ①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다.  
②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.  
③ 제때에 봉양하지 못하다.  
④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하다.  
⑤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못하다.

25. ㉢과 짜임이 같은 것은? [1점]

- ① 黃土    ② 道路    ③ 登校    ④ 日沒    ⑤ 高低

[26~28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世多㉠說東明王神異之事, ㉡雖愚夫駭婦, 亦頗能說其事. …  
(중략)… 東明之事, 非以變化神異眩惑衆目, 乃㉢實創國之神  
迹, 則此而不㉣述, 後㉤將何觀? 是用作詩以記之, 欲使夫天下,  
(㉦)我國本聖人之都耳.

\* 駭(애): 어리석다    \* 眩(현): 어지럽다  
\* 迹(적): 자취  
- 『동국이상국집』 -

26. ㉠~㉦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㉠: 말하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㉡: 비록  
③ ㉢: 진실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㉣: 기억하다  
⑤ ㉤: 장차

27.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㉦에 알맞은 것은?

- ① 無    ② 只    ③ 亦    ④ 改    ⑤ 知

28. 윗글의 중심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집필의 목적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작문의 방법  
③ 건국의 이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신화의 탄생  
⑤ 왕조의 흥망

[29~30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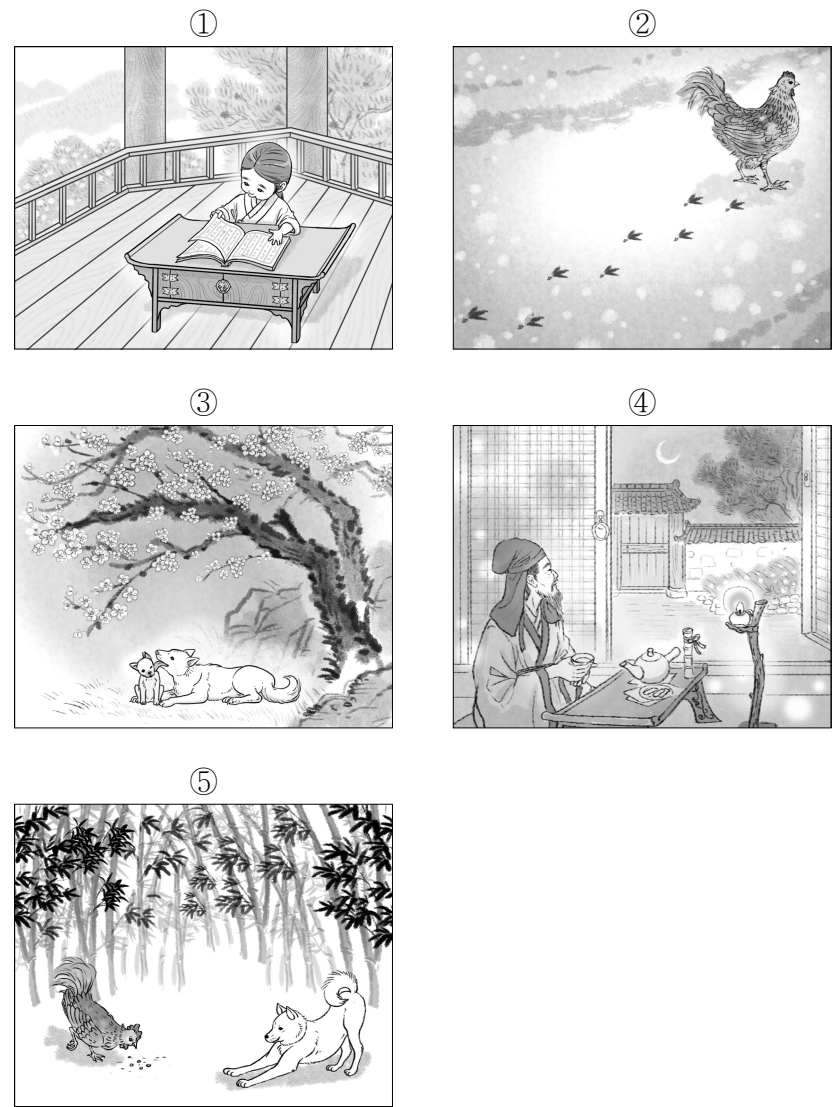
蔡壽有孫, 曰無逸. 年纔五六歲, 壽夜抱無逸而臥, 先作一句  
曰: “孫子夜夜讀書不.” 使無逸對之, 對曰: “祖父朝朝飲酒猛.”  
壽又於雪中, 負無逸而行, 作一句曰: “犬走梅花落.” 語卒, 無逸  
對曰: “鷄行竹葉成.”

\* 蔡壽(채수): 사람 이름    \* 纔(재): 겨우  
- 『어우야담』 -

29.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등장인물 간의 관계가 드러나 있다.  
② 등장인물 간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.  
③ 등장인물 간에 주고받은 시구가 있다.  
④ 등장인물의 청빈한 삶을 다루고 있다.  
⑤ 등장인물의 문학적 재능이 나타나 있다.

30. 윗글에 나오는 시구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?



\* 확인 사항  
○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  
하시오.